

큰스님 수행한담

뿌리 잘린 나무 같아요”



94년 가을 영광 불갑사에 조계종 원로큰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지증스님.

수 있다' 이어서고는 '서로 남의 부모도 내부모습이 받들고 부처님 자비사상으로 무장할 때 온인류가 구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가르치시니 전국각지 각처에서 스님의 가르침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분입니다" 하니 고개를 좌우로 돌리시더니 주무시려고 해서 스님들이 부촉하려 하니 이미 열반하신 뒤였어요. 스님은 장례비용에 보태리며 만환자리 한장과 도장만을 남기셨습니다. 수행을 많이하신 스님들의 열반모습은 이렇습니다. 생사불이(生死不二)를 몸소 보여주십시오. 마치 현웃을 벗듯 육신의 탈을 자유로이 벗어 버리는 대자유인의 모습으로 후학들을 가르치십니다.

삼독때문에 '작심삼일'입니다 마음 잘 닦아 근본정신 갖추면 어떤 결심이든 실행가능해요

되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안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뜻과 정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찾아주는 참사람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신령스럽게 그치지 않고, 슬픈 것 보고 슬퍼하고 좋은 것 보고 좋아하고 나쁜 것 보고 언짢아 하는 것, 남 죽는 것 보면 가슴 아프고 못사는 사람은 건져서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미물과는 다른 점입니다.

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IMF시대를 살아가고 이겨나가는 지혜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집등 3독에 빠져서 무슨 결심이든 3일 가기가 어렵다는 게지요. 수양이 쌓여 근본정신을 갖추면 어떤 결심이든 실행이 가능합니다. 수양이라 하는 것은 따로 떨어진 것이 없어요. 행위와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리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주좌와 모두가 성불 향하는 수행처 개인 깨끗하면 세상은 저절로 청정국토

만 늙은 몸통이는 죽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 몸통이를 물에 집어넣으면 고기들의 밥이 되고 등에 놓으면 까마귀 밥이나 되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너희들이 하지 않을 것이니 나죽거든 부고(訃告) 내지 말고 사후에 간소하게 포설라 버려라"고 하셨습니다.

계셨는데 아침에 문안인사 드리러 가서 법거랑을 했습니다. 고암 전장 우화 필용도광 도친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이나 주 다보선원에서 선방을 차리고 계시다고 해서 거기까지 3년을 보냈습니다. 사찰에 있더라도 질 중수하고 대중이 끄는 것을 연연하면 안됩니다. 그런일에 연연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주도하려 들거든요. 또 사관상 일은 시절인연을 잘 타고 나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찰 주지하고 불사하는 것은 지나고 나면 다 허송세월입니다. 가나 오나 지나 깨나 자기의 본래면목을 잃지 않는 수행이 스님들의 본분사입니다.

좋은 것 보면 '관세음보살', 나쁜 것 봐도 '관세음보살', 마음이 생기더라도 내가 부처님 믿는 사람인데 하고 '관세음보살' 해보라 이겁니다. 그럴줄 알아야 불교를 잘 아는 것입니다. 걸터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모든 미물도 자기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으로 하면 국가지요. 지금 세계는 그것이 없어요. 경쟁만을 제일로 하니 끔찍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온세계 국민들과 경쟁해야 하는 관이요.

나의 경전



관음경



김태영 관음보살 법사

인연의 시작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군복무 시절, 별 생각없이 펼친 <관음경(觀音經)>이었다. 부시시한 눈을 찌를 듯이 다가온, "생각생각의 심치 말라(念念勿生疑)"는 간곡한 말씀은 한껏 부정의 논리에 익숙해 있던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 철책이라는 엄연한 한계상황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모순을 느꼈기에, 솔직히 말해서 씁쓸함이 치미는 의심만 더해 갈 뿐이었다.

그렇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에 대하여 부족하다는 규정을 하고 있는 한, 불만과 이에 따른 불안이 언제나 함께 하기 마련이다. 세상과 대립하고 있는 '나'를 중심에 두고 충족시켜야 할 조

비록 하나의 품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간파한 옛 선지식들은 가까이 독립된 경전의 가치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경전의 흐름은 전(全)생명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관세음보살의 엄청난 능력에 대한 적나라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다. 때문에 보문(普門)이 뜻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들려서 신음소리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는 관세음보살은 아득한 저 하늘 높은 곳에 자리하는 존재가 아니다. 다가 올 미래도 아니다. 괴로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중생들이 사는 바로 지금, 이곳에 항상 한다. 괴로워하는 당사자는 그 괴로움의 무게에 눌려서 신음소리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지만, 관세음보살에게는 걸림없이 노니는 놀이터와 다르지 않기에 말이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을 석가모니부처님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려는 시

“실상 의심말라” 관음보살 증언 가득 부처님 가르침 믿고 깨닫는 普門

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심치 말라는 절대적인 명제를 대하면서도, 내심에서는 전혀 의심의 자락을 거두지 않은 채로 만났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었다. 알파한 문자지식 정도로 어찌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었겠는가? 거듭되는 수지독송(受持讀誦)의 결과는 너무도 엄중했다. 우리네 삶의 실상은 부족이 아닌 만족, 불행이 아닌 행복임을 드러내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관음경>은 끝이 현상의 무의미성을 지적하는 우회적인 표현을 빌리지 않는다. 현세이익을 직접적으로 실천한다. 욕망은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므로, 각자의 내면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욕망을 정면에서 응시하라고 한다. 아낌없이 내어 써야 할 생명력이므로, 참된 삶의 실상을 의심치 말고 누리고 살면 그뿐이라는 희망의 물결만이 넘실댄다.

도는 당상에 불과하다. 부처님이 수행하신 내용 그대로가 관세음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므로,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따지려는 시도는 더 더욱이나 소용없는 것이다. 어떤 형상을 갖고 있던 본래부터 관세음보살이 아닌 생명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만약 한량없는 백 천 만의 증생들이 여러가지 고뇌를 당할 때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그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觀)하고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니라." 무진의(無盡)보살에게 하신 다짐이다. 그럼 무진의란 누구인가? 다함이 없는 원대한 뜻을 품고, 생각의 언저리에서만 맴도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름없다. 나름대로의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흔히들 괴롭다고 한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명호 즉 그 이름에 담긴 이름값을 자기화할 때, 자신의 괴로움은 온 곳 없이 사라진다. 관세음의 이름을 칭하는 것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을 믿는 것이고, 그 가르침에 의해 구원되고 있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for '불로화정 (不老化精)' featuring a testimonial from Siyeon, a health product descrip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ukyeong Health Center (如來健康院).